

세계 평화와 일치
특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100만 😊 어린이의 묵주기도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기도문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와 두 아들

1



2



3



4



5



6



“세계 평화와 일치”
특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요!



묵주기도는
이렇게 해요

6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
신비 2단
주님의 기도

5 성모송 10번

4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
신비 1단
주님의 기도

3 성모송 3번
(한 알에 1번씩)

2 주님의 기도

1 성호경
사도신경

16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
성모찬송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리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모님을 통해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참된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자
마리아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찬미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모님의
찬송처럼 우리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아무도 가난하고
굶주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찬미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켜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은 시메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은 이 아기가
약속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 마리아와
요셉은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은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어도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걱정하며 예수님을
사흘 동안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무도
길을 잃지 않고 당신께서 계시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이란?



🕒 배경

2005년 어느 날, 남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어머니들은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성모님의 강한 현존을 느꼈어요!

2008년부터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재정 지원을 하면서, 2017년에는 전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참여방법

10월 18일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오전 9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사랑의 실천

묵주기도 뿐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2022년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ACN이 제작한 어린이 성경 4만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32450

예금주 (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337호

문의 02-796-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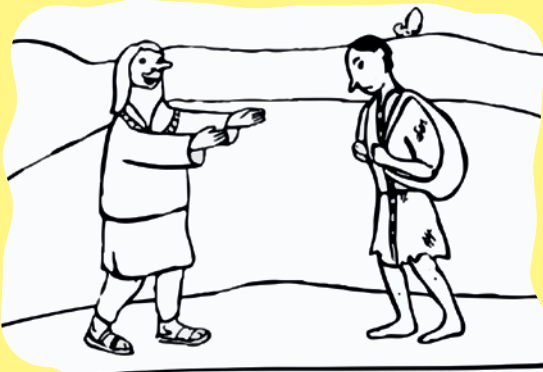
기도문

영광송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 아멘.

구원을 비는 기도(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색깔을 칠해보세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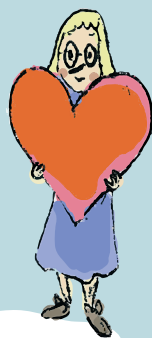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루카 15,11 - 32 | ACN 어린이 성경 139 - 140쪽



성모마리아께 드리는 어린이 봉헌 기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하는 모든 것,
저의 온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을 당신께로 한 명, 한 명 데려와
제 마음속 사랑 안에 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축복하고 보호해 주소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
당신을 저의 어머니로 사랑하며
당신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어머니, 저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길 원합니다.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 인준(2020.09.16.)

이렇게 기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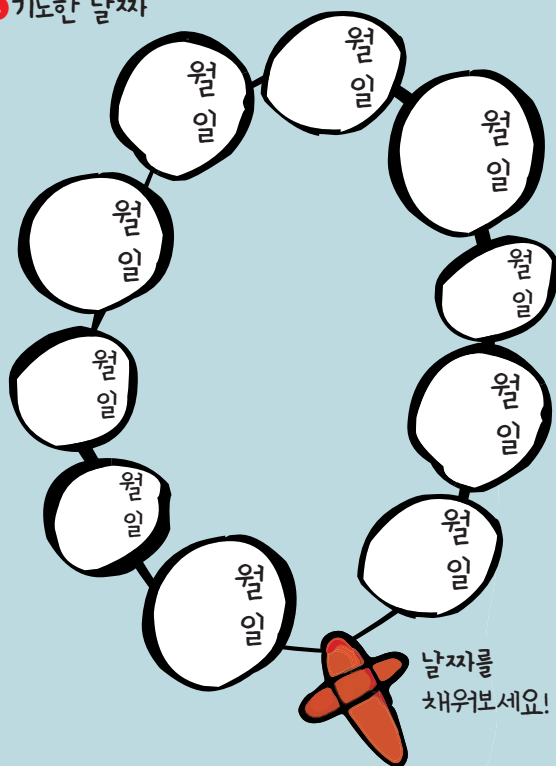
① 이름과 세례명

② 본당

③

을(를) 위해 기도했어요!

④ 기도한 날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32450
예금주 (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337호
문의 02-796-6440

A C N
홈 페이지

